

인구감소 시대의 공간재생과 관계인구의 역할 :인제군의 ‘꼬부랑계하’와 예술가의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문화인류학과
202410467
하정은

최최종 보고서 제출일: 26/06/15

목차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인제군 기본 개요 1

II. 본론

- 2.1. 소멸지역의 위기:정주 인구 중심주의의 한계 2
- 2.2. 연구자의 춘천 예술촌 선행 연구 사례 4
- 2.3. 지속 가능한 재생의 조건: 꼬부랑계하의 관계여백과 유연한 연결 5
- 2.4. 확장 가능성:유연한 도시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 9

III. 결론

- 3.1. 인제군 관계인구 정책의 발전 모색 및 제언 11

IV. 참고문헌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 간의 정주 인구 뺏기 경쟁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정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외지인이지만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만을 개방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로 진행했던 ‘춘천 예술촌 레지던스’ 사례에 따르면, 폐쇄적 유희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연고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외부 자극의 부재’라는 한계를 보였다. 반면, 인제군의 ‘꼬부랑계하’ 프로젝트는 낡은 숙박시설을 예술가의 거점으로 삼으면서도, 작가들이 언제든지 지역을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관계여백’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사회 관계자본 축적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의 지속 가능한 관계 맺기와 공간재생 방안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술가들의 공간 제공에 머물렀던 춘천 예술촌의 한계와 유연한 관계 맺기에 집중하는 인제군 ‘꼬부랑계하’ 사례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관계여백’의 중요성을 밝히고 새로운 지역 재생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인제군 기본 개요



〈사진 1〉 인제군 행정지도, 위키백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 북부 지역에 있다. 철원군·양구군·고성군과 더불어 휴전선에 접한 곳이기도 하다. 서쪽에 양구군·춘천시, 동쪽에 고성군·속초시·양양군, 남쪽에 홍천군과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1개 읍과 5개 면이 있다.

인제군은 홍천군에 이어 강원도에서 2번째로 큰 지역이며, 인구는 약 3만 8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간 내륙에 위치해 연교차는 물론 일교차도 매우 크며, 연평균 기온은 11.9도이다.¹⁾

이번 영촌맺기의 주 연구대상인 ‘꼬부랑계하’는 인제군 인제읍에 자리해있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제군〉,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021>

II. 본론

2.1. 소멸지역의 위기:정주 인구 중심주의의 한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인제를 포함한 전국 18개 지자체를 ‘인구감소 관심 지역’(이하 관심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이하 감소지역)과는 구별되는 단계로, 인구 감소지수가 높아 향후 소멸 위험이 크지만, 당장 위기 단계인 ‘인구감소지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정부가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을 새롭게 ‘관심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전체가 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강원 동해안 전역이 사실상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²⁾

이로써 강원도 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89%)이 법적으로 공인된 ‘인구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1년 10월 정부가 감소지역을 최초 선정할 당시, 감소지수가 높지만 즉시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던 상위 18개 지역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지정’ 단계로 격상한 조치다. 이들 4개 시·군의 인구 위기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행안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군(郡) 단위 중 유일하게 관심 지역으로 버티던 인제군마저 2025년 11월 기준 3만 868명을 기록하며 ‘3만 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³⁾

그런데 같은 2025년 12월, 인제군이 ‘인구 감소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내 군 단위 지역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인제만 ‘감소지역’이 아니다 보니 인근의 다른 군 지역보다 정부 지원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소지역에는 연간 약 120억 원이 지원되는 반면, 관심 지역에는 약 30억 원만 배정된다. 이로 인해 인제군은 2021년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4년 동안 주변의 인구 감소지역보다 약 200억 원가량 적은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 국방개혁 2.0 당시, 화천이나 양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 배경으로 작용한다.⁴⁾

‘정주 인구’란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를 말하며,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 개념이다. 인구조사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 늘 거주하는 인구로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사람은 포함된다. UN 기준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 주로 거주한 장소이며, 한국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소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주간에만 거주하는 인구인 ‘주간인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이다.⁵⁾ 그러나 이러한 ‘정주 인구’ 기준은 지역의 실제 위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

2) 윤왕근, 〈강릉·동해·속초까지 '인구감소관심지역'...동해안 전역 소멸 경고등〉, 《뉴스 1》, 26.01.05., <https://www.news1.kr/local/kangwon/6027874>

3) 이무현, 〈강원 춘천·원주 빼고는 '소멸 위기'... 강릉·동해·속초·인제 '인구관심지역' 지정〉, 《강원일보》, 25.12.31., <https://m.kwnews.co.kr/page/view/2025123017105028434>

4) 김문영, 〈왜 우리만 관심 지역?〉...인제,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구, 《KBS》 25.12.3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7198>

5) 홍석천, 〈[인구특집 I] ‘생활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춘천사람들》, 2023.02.06.,

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감소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서, 유사한 위기에 놓인 지역 간에도 정책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의 위기를 판단하는 방식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시사한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경험한 일본도 유사한 인구 개념인 ‘관계인구’를 도입한 바 있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관심을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으로, 생활인구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⁶⁾ 생활인구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추계하기 시작한 새로운 인구 모델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다른 지역의 인구를 뺏는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

다나카 데루미는 이러한 양적 인구감소의 이면에 숨겨진 ‘질적 문제’에 주목한다. 그는 지역 소멸의 핵심이 단순히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주체들이 의욕을 잃고 스스로 해결하기를 단념하는 ‘마음의 과소화’에 있다고 분석한다. 기존의 인구 대책인 정주 인구 확대 시책은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인구 유치 경쟁을 야기하며, 관광 중심의 교류 인구는 일회적이고 불확실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달리, ‘관계인구’는 지역 내부 주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외지인 효과’를 발현한다. 이들은 지역 주민과의 대등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평적 네트워크와 신뢰라는 사회관계 자본을 구축하며, 무력해진 주민들이 다시 지역 재생의 당사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관계인구 정책의 실질적인 목표는 단순히 외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주민과 외지인 사이의 질적 관계 형성을 통해 소멸해가는 지역 공동체의 주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 있다. (허장, 2024)⁷⁾

<https://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4871>

6) 최훈, 〈정주인구 확보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먹고 즐기고 일하는 인구〉,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x=14306&sel_year=2023&sel_month=05

7) 허장, 「정주인구도 교류인구도 아닌 관계인구」, 『농촌사회』, 2024

2.2. 연구자의 춘천 예술촌 선행 연구 사례



〈사진 2〉 춘천 예술촌 전경, 직접 촬영(2025)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자가 2025년 11월 춘천 예술촌에서 진행했던 현지 조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춘천 예술촌은 과거 기무부대 관사라는 군사 시설을 예술가들의 창작 거점이자 시민 소통 공간으로 재생한 유희공간 활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춘천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이후, 춘천 예술촌에 레지던시 입주 작가를 모집하여 ‘공동의 기억’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레지던시(Residency)’란, 수개월에서 1년 동안 예술가에게 거주·전시 공간과 작업실 등 창작 생활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3기 입주 작가와 직접 대면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실제 현장과 기획 목표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춘천 예술촌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지역 중심주의’이다. 당시 입주 작가 모집 요강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춘천 거주 또는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출생지가 춘천이거나 과거 춘천을 주소지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춘천을 주소지로 하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시각 예술 분야의 학과만 인정)’로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예술가에게 창작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명분을 지니지만,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폐쇄성은 현장 작가들에게 ‘외부 자극의 부재’라는 실질적인 고충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작가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매우 좋지만, 실제 레지던시에 서울이나 해외 작가의 유입이 부족해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작가 위주의 선발 방식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힘들다”거나 “외부 작가들이 와야 새로운 자극이 생긴다”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 사이의 ‘공동의 기억’ 형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작가들은 같은 기수 내에서도 예술적 지향점과 작업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일상적인 교류나 협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 작가는 “공동의 기억으로 닿는 지점은 0%”라고 언급하며, 레지던시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창작 환경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언했다. 결국, 이러한 춘천

예술촌의 사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재생하고 작업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⁸⁾ (하정은, 2025)

레지던시 작가들이 외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충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지역 내부에만 머물러 있다면, 재생 공간은 지역 사회를 비롯한 외부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춘천의 경험은 정주나 정착이라는 결과보다, 외지인과의 유연한 연결을 통한 ‘질적 관계 맺기’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비판적 대조군이 된다.

2.3. 지속 가능한 재생의 조건: 꼬부랑계하의 관계여백과 유연한 연결

인제군은 태백산맥 산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고립성과 더불어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안보적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은 인제군을 오랫동안 군사 중심의 경직된 공간으로 규정해 왔으며,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개편과 정주 인구감소는 지역의 활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꼬부랑계하 프로젝트를 통해 인제군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예술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안보의 논리로 고착된 접경 지역의 공간이 외지 예술가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어떻게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화적 장소로 재구성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경지역은 군사적 기능이나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제군 역시 군부대와 훈련장, 그리고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계인구와 꼬부랑계하 사례를 살펴보면, 인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단순히 인구 규모나 행정적 특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고 머물고 떠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꼬부랑계하는 인제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지역의 오래된 숙박시설을 예술가와 외부인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한 이 사례는 인제를 하나의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관계의 장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즉, 꼬부랑계하를 통해 인제군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역을 단순한 행정구역이나 소멸위기 지역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외부인과 지역 주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꼬부랑계하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지역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8) 하정은, 2025, 「춘천 예술촌의 현재와 향후 과제」, 강원대 문화인류학 기초방법론 민족지 보고서(미출판 글)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제를 단순한 접경지역이나 소멸위기 지역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꼬부랑게하 프로젝트이다.



〈사진 3〉 강영민 작가가 제작한 꼬부랑게하 포스터

강 작가는 인터뷰¹⁰⁾에서 프로젝트 참가자 대부분이 도시에서 온 예술가들이며, 처음에는 걷기조차 힘들어하고 자연을 낯설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점차 자연과 시골 생활에 스며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에서 온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서 인제의 모습이 새롭게 발견되는 보람”이라는 그의 말은 꼬부랑게하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외부인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지역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재해석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관계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부 자원으로 이해되지만, 꼬부랑게하 사례는 그 관계가 한 방향이 아님을 보여준다. 도시에서 온 예술가들은 인제의 자연과 일상을 경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동시에 그들의 작품과 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익숙했던 공간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즉, 꼬부랑게하는 외부인과 지역 주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역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 가는 관계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인제군은 기존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지역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

9) 김민관, 〈인제 ‘꼬부랑게하’ (강영민), 인제를 구성하는 시공간〉, 21.08.10.,

<https://www.artscene.co.kr/1751>

10) 〈인제군과 청년작가가 만났다! 인제 청년작가 반년살기 강영민작가 인터뷰〉, 《인제군》, 2021.11.17.,

<https://www.youtube.com/watch?v=o3bPZiZdKYI>

한편 ‘게하’는 게스트 하우스의 출입말로, 객실, 욕실,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저렴한 가격에 객실을 제공하는 숙박업소를 의미한다. 이런 특징 덕분에 배낭여행객과 같이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들이 즐겨 찾는 숙박 형태로 자리 잡았다.¹¹⁾



〈사진 4〉 금성여인숙 이상주·강복섭 씨 부부, 강원도민일보

강 작가가 주목한 인제 읍내의 오래된 ‘금성여인숙’은 1970년대 건축된 이래 전방 군사 지역 이자 외딴 오지였던 인제군의 근현대적 시공간과 그곳에 스쳐 간 사람들의 서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은 과거 60년 전 강복섭(81·여) 씨가 자식 양육과 생계를 위해 1층 흙벽집으로 시작된 곳으로, 초기에는 비가 새어 미군부대에서 자재를 얻어 지붕을 보수해야 했을 만큼 열악했다. 이후 1972년 정식 허가를 취득했으며, 1990년 벽돌집 신축과 이듬해 2층 증축, 그리고 15년 전 리모델링을 거치며 인제군 읍내의 변천사를 몸소 겪어온 역사적 장소이다.¹²⁾ 이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나그네들의 사연과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흔적이 주민들의 기억과 함께 쌓여온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 같은 장소 기반의 관계 형성은 인제 천리길과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한다. 특히 인제 천리길이 지역 여행자들의 주요 동선과 체류 경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금성여인숙은 숙박 공간을 넘어 관계 형성의 거점으로 재탄생된다. 이러한 흐름은 인제 천리길의 김호진 대표가 여행객들의 주된 숙소로 금성여인숙을 선택하고, 투숙객들이 느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주목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11) LOBIN, <게스트하우스>, <https://lobin.co/literacy/term/guesthouse/>

12) 진교원, <오래된 미래 강원 노포 탐방> 5. 인제 금성여인숙, 《강원도민일보》, 22.06.23.,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1985>

인제 천리길 사업(사단법인 인제 천리길)은 2016년부터 ‘인제 천리길 걷기축제’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총 505km에 이르는 옛길과 산길을 따라 37개 구간을 조성하며 지역 여행자들의 체류와 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³⁾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금성여인숙은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천리길 여행자들이 머물고 관계를 맺는 실질적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세련된 현대식 시설이 주는 물리적 쾌적함보다, 공간이 품고 있는 세월의 층위가 외지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나그네들의 보금자리였던 여인숙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으며, 지역과 외지인을 잇는 실질적인 게스트하우스이자 관계의 장(場)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는 전국에 있는 레지던시가 일명 ‘아티스트’만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여행자 신분으로 인제에 찾아온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예술 공간이다. 지역의 과제 중 하나가 지방소멸인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귀촌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에서 청년 작가들도 인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어떨까하는 강 작가의 제안은 성공적이었다.

지속 가능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동력은 ‘관계여백’에서 비롯된다. 관계여백이란 외지인이 그 지역에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빈틈이나 취약성을 의미하며, 이는 곧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인제군은 작가들에게 완벽한 정착 패키지를 제공하여 정주를 강요하는 대신, 소멸 위기의 불안함과 낯은 여인숙의 허술함을 솔직하게 개방함으로써 작가들이 자신을 온전하게 투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었다. 작가들이 언제든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유연한 연결 상태는 역설적으로 지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 더 깊은 주체적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작가를 단순히 인구 통계적 수치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았던 기존의 정주 인구 중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대안적 접근이다. 이러한 관계 맺기는 다나카 데루미(2024)가 제시한 ‘지역 재생 주체 형성의 3단계’를 통해 구체화된다.¹⁴⁾

첫째, ‘관계인구가 지역 과제의 해결을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강 작가의 사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먼저 인제군의 관계인구인 강 작가가 자신의 관심사와 인제군의 과제를 일치시키며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어 지역 주민들과 대등하게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지인 효과’는 지역이라는 물웅덩이에 던져진 돌처럼 파동을 일으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재발견하고 재생의 당사자로 일어서는 변화를 일으킨다. 이는 춘천 예술촌 작가들이 지역 연고 중심의 선발로 인해 ‘단한 로컬리즘’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공동의 기억이 0%”라고 토로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점이다.

13) 이종재, 뉴스1, “인제천리길 함께 걸어요”... 걷기 축제 22~23일, <https://www.news1.kr/local/kangwon/5204259>, 2023.10.19., 2026.05.27. 검색

14) 다나카 데루미, 『관계인구의 사회학』, 2024

둘째, ‘관계인구와 지역 주민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무리 지역 주민에게 의미 있는 제안을 해도 신뢰 관계가 없으면 외지인과 원주민 사이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강 작가는 금성 여인숙에서 3주간 직접 머물며 공간의 주인인 강복섭 사장님과 일상을 공유했다. 그는 3주간의 초기 체류를 넘어, 지난 2021년 6월부터는 아예 2층의 한 방을 작업실 삼아 장기 투숙하며 주민들의 일상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었다. 금성여인숙의 방마다 잠자고 있던 과거 투숙객들의 짧은 날의 추억과 사연들은 이제 작가와 새로운 방문자들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서사로 부활한다.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연부터 소소한 여행의 기록까지, 세월의 흔적이 층층이 쌓인 이 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아카이브가 된다.

이처럼 공간에 남겨진 사연들이 단순한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관계로 이어질 때, 유희 공간은 비로소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지속 가능한 재생의 증거가 된다. 작가가 공간에 상주하며 지역의 이웃으로 기능하자, 과거 나그네들의 보금자리였던 여인숙은 다시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으며 이질적인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관계의 장(場)으로 진화하고 있다.¹⁵⁾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인 카페 ‘투빅’과 술집 ‘넘에향기’를 수시로 드나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는 마치 다나카 데루미의 사례 중 이와모토 씨가 교사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평소 피우지 않던 담배를 배우거나 술자리에 참석하며 경계심을 허물었던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작가가 외지인이라는 역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역민은 외지인을 ‘남’이 아닌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신뢰 관계가 점차 구축되면, 마지막 세 번째인 ‘지역 주민이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해야’ 한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떠나는 것이다. 인제군 사례에서도 보았듯 작가의 예술적 전유는 주민들에게 동네의 평범한 공간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장소였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촉매제가 된다. 금성 여인숙이나 넘에향기 사장님과 같은 주민들이 외지 작가도 저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 애쓰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스스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바로 재생의 완성 단계이다. 이상의 세 단계를 지역 재생 주체의 형성 과정으로서 다시 이해하면, 지역 과제에 관심 있는 관계인구가 지역 주민과의 사이에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재생 주체로서 형성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영향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 과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움직이면 그들도 새롭게 지역 재생 주체로서 형성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¹⁶⁾

결국, 꼬부랑게하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이 외지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그들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마주 보는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이 한국의 생활인구 개념을 넘어 ‘관계의 질’에 주목하듯, 인제군은 작가들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동반자로 간주한다. 관계인구는 외부와 소통하는 ‘문’과 같

15) 진교원, 위의 뉴스

16) 다나카 데루미, 위의 책

은 존재이며, 이들이 물리적으로 인제를 떠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네트워크라는 '사회 관계자본'은 지역의 공공재로 남게 된다. 정주하지 않는 이들의 유연한 활동이 지역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꼬부랑계하의 사례는 소멸 위기 지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질적 재생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¹⁷⁾

다나카 데루미는 관계인구가 지닌 가장 큰 가능성으로 '지속적인 이동성'을 꼽으며, "관계인구는 지역을 떠나도 좋다"라고 말한다. 이는 관계인구가 지역에 영구히 정주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머무는 동안 구축한 사회 관계자본은 개인과 지역에 축적되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인제군의 '꼬부랑계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전형적인 '바람 같은 사람'의 유형으로서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떠나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주민과의 신뢰 관계는 작가의 퇴거 이후에도 지역의 자산으로 남는다. 이러한 연대형 사회 관계자본은 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작가들이 인제를 떠난 뒤에도 '지역 밖에 사는 지인'으로서 지속적인 자문이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관계인구의 부재가 지역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사회 관계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주체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인제군 사례에서 예술가와의 협동을 경험한 주민들은 외지인이 떠난 후에도 또 다른 관계인구나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지역 재생의 동력을 스스로 유지해 나가는 힘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관계인구의 유입과 이동은 소멸 위기 지역에 일회성 활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질적 변화를 통해 재생 주체의 다층적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입증된다.

2.5. 확장 가능성:유연한 도시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

광역 교통망의 발달은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여 사람들의 생활권을 대폭 확장했으나, 소도시의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지방소멸의 위기는 단순히 자연적인 출생률 저하보다, 교육이나 직업을 찾아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감소'가 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높은 유동성은 지역의 정주 인구 수치를 유지하려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동시에,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한 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다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거주민을 늘리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교류하는 '생활인구'의 유동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유연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17) Google Gemini 답변 참고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은 액체라는 의미가 있는 '리퀴드(Liquid)'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탄(Politan)'의 합성어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도시를 말한다.¹⁸⁾ 이는 유동적이고 다변화된 도시 생활 방식을 반영하며, 도시가 지리적 경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가 이동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제군의 꼬부랑계하 프로젝트 역시 리퀴드폴리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희공간을 하나의 예술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를 역동적 공간인 리퀴드폴리탄으로 전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꼬부랑계하를 통해 만들어진 유연한 관계망은 인제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또 언제든 사람이 흐르며 동시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액체와 같은 유연한 지역을 조성하여 인제군은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 이 확장성의 핵심은 예술가라는 특정 집단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지역 청년, 기획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구가 인제군과 결합하여 관계인구로 다각화하는 데 있다.

춘천 예술촌이 지역 연고 중심의 선발로 인해 스스로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던 것과 달리, 인제군은 지역의 취약함과 일상의 공간을 솔직하게 개방함으로써 외부 주체들이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정착의 강요가 없는 유연한 여백은 외지인들이 주민의 삶에 더 깊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 이는 인제군이 단순한 농촌 지역을 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섞이고 협동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인제군의 발전 모델은 다나카 데루미가 제시한 주체 형성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관계인구가 던진 자극이 주민들의 주체성 회복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인제군은 외부의 일시적인 수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생적인 재생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¹⁹⁾ 주민들이 스스로 외부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과 대등하게 마주보는 '협동'의 문화가 지역 전반에 확산할 때, 인제군은 정주 인구감소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도 '희망 활동 인구'가 끊이지 않는 지속 가능한 활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제군의 확장 가능성은 지역을 가두는 경계를 허물고, 얼마나 많은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외부와 함께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

'로코노미(Loconomy)'를 활용한 지역 자산의 부가가치 창출은 인제군이 유연한 도시인 리퀴드폴리탄으로 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 전략이다. 로코노미는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희소성을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소비자들이 거대 브랜드의 표준화된 상품보다 특정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로컬다움이나 도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함에 따라, 로컬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

인제군의 꼬부랑계하 프로젝트는 이러한 로코노미적 가치를 선제적으로 수용한 사례이다. 단

18) 이진백, <[인구 Village] '리퀴드폴리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라이프 인》, 24.09.12.,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838>

19) 다나카 데루미, 위의 책

순히 낡은 여인숙을 리모델링하여 숙박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제 읍내의 ‘금성 여인숙’, 무인 카페 ‘투빅’, 술집 ‘님에향기’ 등 주민들의 삶의 흔적이 깃든 장소를 예술적 전유를 통해 지역만의 독특한 콘텐츠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정돈된 시설 제공에만 집중했던 춘천 예술촌과 달리, 지역의 평범한 일상을 외지인들에게 매력적인 로컬 분위기로 전환함으로써 인제군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로코노미 전략의 고도화는 지역 내 유희공간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기획으로 확장된다.

리워드폴리탄은 정착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이 유동적으로 모여 들 수 있는 매력적인 거점을 필요로 한다. 인제군은 꼬부랑계하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산재한 빈집이나 방치된 공간을 ‘관계여백’으로 가시화하여 예술가뿐만 아니라 디지털 노마드나 청년 창업가들이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들이 인제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로컬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반복될 때, 인제군은 단순한 농촌 지역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교차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멀티 로컬(Multi-local)’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²⁰⁾

III. 결론

3.1. 인제군 관계인구 정책의 발전 모색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지역 위기 속에서 강원도 인제군의 '꼬부랑계하'의 사례를 통해 정주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유연하게 흐르는 인구인 '관계인구'가 지역 재생의 새로운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인제군 꼬부랑계하 프로젝트는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라는 경직된 공간적 제약을 외지 예술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화적 장소로 재구성해 냈다. 특히 60년 전 강북읍 씨의 생계와 애환이 서린 흙벽집에서 시작해 벽돌집으로 신축 및 증축을 거듭하며 인제군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버텨온 '금성여인숙'의 공간적 서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 전국 각지의 면회객과 나그네들이 머물다 가던 거점은 사단법인 인제 천리길이 추진하는 도보 중심의 천리길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여행객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새로운 관계의 장으로 거듭났다. 과거에 묶여있던 시간의 흔적을 현재 외지 청년 및 방문객들의 서사와 결합하여 '기록으로 남긴 공간'으로 복원해 낸 이 실천은 유희 공간이 어떻게 지역의 연대형 사회 관계자본을 발신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는지를 실증한다. 다나카 데루미(2024)의 논의처럼, 관계인구는 지역에 영구히 머물지 않고 바람처럼 떠나갈지라도 그들이 머무는 동안 축적된 신뢰와 주민들과의 수평적 네트워크는 지역 공동체의 '마음의 과소화'를 막고 주민 스스로 재생의 당사자로 일어서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20) Google Gemini 답변 참고

이번 영촌맺기 활동을 통해 나는 인제군을 단순한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춘천에 거주하며 인제를 주로 군사도시이자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관광지 정도로 인식해 왔지만, 꼬부랑계하와 금성여인숙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인제는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고 떠나며 관계를 축적해 온 공간이라는 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강영민 작가가 언급한 “도시에서 온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서 인제의 모습이 새롭게 발견되는 보람”이라는 말은 나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지역을 이해하는 주체가 반드시 지역 주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시선 또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꼬부랑계하는 이러한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과거 먼회객과 여행자들이 머물던 금성여인숙은 오늘날 예술가와 방문객, 지역 주민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춘천예술촌 역시 예술을 매개로 지역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지만, 꼬부랑계하는 예술가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여행자와 방문객까지 관계 형성의 주체로 포괄하며 보다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차별적으로 다가왔다. 이를 통해 나는 인제를 행정구역이나 소멸위기 지역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꼬부랑계하는 인제를 관계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재생의 가능성은 인구 증가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팎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참고문헌

- 김문영, <왜 우리만 관심 지역?…인제,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구>, 《KBS》 25.12.3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7198>
- 김민관, <인제 ‘꼬부랑계하’(강영민), 인제를 구성하는 시공간>, 21.08.10., <https://www.artscene.co.kr/1751>
- 다나카 데루미, 『관계인구의 사회학』, 한스하우스, 2024
- 이무현, <강원 춘천·원주 빼고는 '소멸 위기'… 강릉·동해·속초·인제 '인구관심지역' 지정>, 《강원일보》, 25.12.31., <https://m.kwnews.co.kr/page/view/2025123017105028434>
- 이진백, <[인구 Village] '리퀴드폴리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라이프 인》 24.09.12.,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7838>
- 이종재, 뉴스1, “인제천리길 함께 걸어요”… 걷기 축제 22~23일, <https://www.news1.kr/local/kangwon/5204259>, 2023.10.19.
- <인제군과 청년작가가 만났다! 인제 청년작가 반년살기 강영민작가 인터뷰>, 《인제군》, 2021.11.17., <https://www.youtube.com/watch?v=o3bPZiZDKYI>
- 윤왕근, <강릉·동해·속초까지 '인구감소관심지역'…동해안 전역 소멸 경고등>, 《뉴스 1》 26.01.05., <https://www.news1.kr/local/kangwon/6027874>
- 진교원, <[오래된 미래 강원 노포 탐방] 5. 인제 금성여인숙>, 《강원도민일보》, 22.06.23.,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1985>
- 최훈, <정주인구 확보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먹고 즐기고 일하는 인구>,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x=14306&sel_year=2023&sel_month=05
- 하정은, 「춘천 예술촌의 현재와 향후 과제」, 강원대 문화인류학 기초방법론; 민족지 보고서, 2025(미출판 글)
- 허장, 「정주인구도 교류인구도 아닌 관계인구」, 『농촌사회』 34(1), 2024
- 홍석천, <[인구특집 I] ‘생활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춘천사람들》, 2023.02.06., <https://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487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제군,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021>
- LOBIN, <게스트하우스>, <https://lobin.co/literacy/term/guesthouse/>

**본 보고서에 AI를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활용 AI: Google Gemini Pro

활용 부분 1: “인제군 꼬부랑계하 프로젝트가 지역 재생에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관계인구와 협동의 관점에서 결론 문단을 작성해줘.” 답변 참고함

활용 부분 2: “로코노미 개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로 인제군 ‘꼬부랑계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이를 지역 공간 활용 전략으로 확장하여 서술해줘.” 답변 참고함